한국 민주화운동사 총정리판 『한국민주화운동사1』 발간

사업회 연구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한국민주화운동사』(전3권) 1권을 발간했다. 1권은 제 1공화국 이후 제 3공화국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사건으로는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1970년의 전태일 분신, 1971년의 광주대단지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다. 유신 시기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2권과 3권은 오는 2010년까지 완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편찬위원회(위원장 서중석)가 전체 목차와 중요도에 따른 분량, 해석의 범위 등을 논의해 정하고, 각 시기별 · 주제별 전공 연구자가 1차 집필을 진행한 후 2~3회 토론을 거쳐 수정하고, 기술방식을 통일해 최종적으로 자문위원들이 교차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일종의 공동연구 성격을 띠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한데 모아 균형적인 서술, 보편적인 서술로 종합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전까지 '민주화운동사'의 정리 작업이 산발적, 개별적, 부문별로 이루어져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동연구'의 성격으로 총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앞으로 민주화운동사의 연구를 더 활성화 ·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은 작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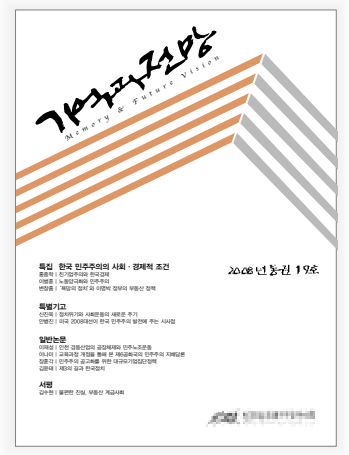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 · 화해 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들의 조사자료 등 최근 발굴되거나 발표된 자료들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러 1차 자료들을 교차 ·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자료적 ·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책이지만, 그 내용은 한국 현대사의 각 시대 상황에 비추어 민주화운동사의 주요 사건이나 맥락을 폭넓고 충실하게 기록하고, 여기에 균형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탠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손색이 없다.

사업회 이북(e-book) 서비스 실시

사업회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회원들을 위해 사업회에서 발간한 단행본과 자료집을 이북(e-Book)으로 만들어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http://www.kdemocracy.or.kr/ e-book/ebook.asp)를 시작했다. 이북 서비스는 각종 사업회 발간 자료를 온라인상 검색 ·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책 형태로 편집, 디자인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북 사이트에는 사업회에서 발간한 소식지 〈희망세상〉과 계간지 〈기억과 전망〉 그리고 각종 학술 연구서와 단행본, 시대의 불꽃 시리즈, 역사다시읽기 등 150건의 자료를 서비스한다. 이용 방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에서 e-book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주소 창에 http://www.kdemocracy.or.kr/e-book/ebook.asp을 쳐서 검색하면 된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 발간
특집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 · 경제적 조건



사업회 연구소에서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란 주제로 3편의 관련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특별기고로 2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4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특집 첫 번째 논문인 '친기업주의와 한국 경제'에서 홍종학(경원대)은 1920년대 미국의 후버리즘을 대상으로 시장의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친기업주의의 부작용을 고찰하고, 경제 성장률과 일반 국민들의 소득간 괴리현상이 심화,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은 양극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에서 이병훈(중앙대)은 노동양극화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자유(절차적)민주주의와 사회개혁(실질)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변창흠(세종대)은 "'욕망의 정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건설업체, 개별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주거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준다. 값은 1만원이며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

교육사업팀은 지난해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해운대 글로리콘도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로 부산경남지역 교사들과 민주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교실'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역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에 이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용기, 경험, 비전을 갖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적인 수업을 경험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평화민주교육을 위한 학부모 강사양성 과정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일(월)부터 13일(토)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청소년 평화민주교육을 위한 학부모 강사양성 과정을 통학교육 3회, 숙박교육 1회로 진행했다.

청년평화센터 푸름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올 상반기에 용인시민대학에서 평화교육과정 100시간을 마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참누리'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현장에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참누리 구성원들이 학교, 청소년센터 등에서 평화민주교육 강사로 활약할 날을 기다려본다.

민주시민교육 수업 프로젝트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8일(목) 서울 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인솔교사 배성호)과 함께 국립중앙박물미술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그룹별로 어린이들이 기자가 되어 박물관 곳곳을 취재하고 신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이섬 평화 책 축제 참여수업을 시작으로 여성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수업으로 마무리한 이번 수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민주적인 경험을 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전지역 교육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9일(금)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대전지역 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역량을 겸비한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활동가 아카데미는 그 동안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에 목말라 있던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전국 기념(계승)단체 워크숍 개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기념(계승)단체 워크숍이 지난달 18일(목) 대전광역시 유진호텔 회의실에서 10개 단체 38명의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역별 2009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제안내용 검토에 이어 사업회 문국주 상임이사의 '2009년 사업기조와 최근 현안 설명회'와 후속모임 순으로 진행된 이 날 워크숍은 부마민주항쟁 3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전국 기념(계승)단체의 새로운 연대사업을 모색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진영 폄훼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일정 중 사업회와 5·18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3개 단체가 별도로 모여 진행한 2009년 교육사업 간담회에서는 사업일정 공유와 더불어 3개 단체 교육사업 공동추진 내용과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후속작업으로 사업회는 워크숍에서 제안된 연대사업의 기초 자료가 될 사업영역(기념, 교육, 연구, 사료, 국제)별 전국사업일정과 단체별 생산물 목록, 교재 등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소선 여사 팔순잔치와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 출판기념회 개최

지난달 5일(금)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이자 민주화운동의 파수꾼으로 늘 지극한 인간 사랑을 보여주는 이소선 여사의 팔순잔치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2년 여 동안 진행된 '생애사' 구술채록을 책으로 묶은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과 그동안 이소선 여사와 고락을 함께해 온 분들의 글을 모아 만든 기념문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 이 날 팔순잔치에는 추운 날씨를 마다않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업회와 전태일기념사업회, 양대 노총, 추모연대 등 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날 행사는 7·80년대 평화시장과 청계피복노조를 지켜왔던 전태일의 동료들과 후배들, 생존의 벼랑에 몰려있는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연유로 이소선 여사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 함께 축하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린 정겨운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공동주최한 6개 단체의 분담금과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수백명의 뜻 깊은 모금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한층 빛났다.

세계와의 대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국제사업단은 지난달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전 미 상원의원인 마이크 그레벨 씨를 초청해 목포와 서울에서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란 주제로 각각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 한국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와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국제사업단에서 진행해온 직접민주주의 관련 유럽 워크숍과 세계 직접민주주의 회의(스위스 아라우주), 미국 워크숍의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과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 모색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마이크 그레벨 씨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갖는 자발적 시민 참여를 높이 사면서 한국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 한국형 국민발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16일(화) 목포 전라남도 의회에서 개최된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을 필두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바쁜 연말임에도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목포 행사는 전라남도 의회와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1부에서는 김창남 전라남도 의회 의원의 사회로 문국주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인사말과 박인환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마이크 그레벨 씨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그동안 국제사업단에서 진행한 세계 직접 민주주의 현장 참관에 대한 영상보고가 이루어졌다. 3부에서는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전남대 오재일 교수 사회로 박현희 서울대 기초 교육원 연구교수의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현황' 에 대한 발표와 박성훈 고려대 정부학 연구원의 '광주 북구청과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성훈 연구원은 두 지방자치제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으로 시의원과 주민대표 사이 예산 심의에 관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형식적 과시용으로 운영될 위험, 적절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이나 원칙의 미비, 시민의 예산에 대한 부족, 주민 참여 활성화 문제,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성공에서 보듯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 적합한 지역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19일(금) 오전 기념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토론자로 나온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에 대해 소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부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투표가 갖는 긍정적 힘에 대해 발표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오후 공개 강연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참여하면서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앤드류 애리아 말레이시아 사라왁 대학 교수와 대만의 첸 홍잉 하우란 재단 파견 인턴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민주주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국제사업단에서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 각 국의 추세와 흐름, 활동에 대해 계속 한국 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다.